

철도교통 중심지 구축 총력

의산시, 국토부에 관련 사업 반영 요청 유럽으로 뻗는 대륙철도 전진기지 마련

의산시가 국내 최대 철도망을 활용해 대륙철도망과 새만금 항만·항공을 연계한 트라이앵글 구축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여객과 철도사업에 이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 지정과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완료 예정인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가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치권 협조를 요청

할 예정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2021~2030)의 철도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은 국가철도의 중장기 계획이다.

앞서 시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 지정을 위해 이미 관련 조례(의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국내 철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9년부터 철도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거점역 개발 및 정비방안 검토'가 반영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남북고속철도 특위 출범 등 남북철도 연결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조

성되고 있어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관련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과 의산·대야·군장국가산단 연결을 통해 환경해권 시대 철도물류 수송의 중심지로 도약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산업철도 연결은 향후 중국, 러시아, 유럽 수출을 위한 식품유통의 핵심이 될 선제조건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산시와 완주군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 관련 용역을 완료한 결과 경제성분석 각각 1.08, 1.10으로 타당성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산업선 건설을 반영하도록 공동 건의했으며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산=장양원 기자



원광대병원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의료인 대상 코로나19 예방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했다.

원광대병원, 의료인 대상 백신 접종 시작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의료인 대상 코로나19 예방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했다.

원광대병원은 접종 대상자인 보건 의료인 및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 동의를 얻어 응급실 인접 장소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예진표를 지참하고 당일 접종 장소에서

대기, 접수, 예진, 접종, 관찰(약15분~30분) 순으로 접종을 마치게 되는데 예진을 통해 접종이 연기될 수도 있다.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당일 본

인 컨디션 체크, KF마스크 착용, 예진 표 지참, 사원증 또는 교직원 번호 숙지, 타 접종 14일 이내 간격 유지 등 유의사항을 숙지토록 한다.

이재훈 감염관리실장은 "본원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방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원광대병원을 찾는 환자 및 내원객 모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예방 접종 후 교직원 및 지역민 모두가 코로나19의 어둠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회귀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있다고 마음을 전했다.

/의산=장양원 기자

의산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단속 강화

음식점·유통시설 등 6개 업소 적발, 과태료 부과

의산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 결과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음식점과 카페, 유통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이 가운데 음식점과 단란주점 등 6개 업소가 적발됐다.

음식점 3곳, 단란주점 3곳에서 방역 수칙 위반사항을 적발됐으며 해당 업체는 출입자 명부 미작성 1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이행 1건, 단란주점 22시 이후 영업 3건 등이다.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영업주 150만원, 이용자 1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5인 이상 동반 입장 및 모임 금지, 테이블 간 거리두기, 업소 출입 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명부 작성, 유통, 단란주점의 경우 22시 이후 영업 여부 등을 접종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행복학습센터 사업자 모집

찾아가는 지역 평생교육의 바람이 거세진다!

군산시는 마을 단위 주민이 함께 모여(학습공동체) 평생학습에 의한 배움을 토대로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는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 주민 10인 이상이 학습공동체를 구성해 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등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 마을자원·문화유산·역사·관광자원 등과 연계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주제학습 강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기간은 8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다.

선정 규모는 5개소 내외, 지원 규모는 개소당 1천만원 이내로 (군산시 직접 집행) 사업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군산시 교육지원과에 이메일 (skysilkroad@korea.kr)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화학물질관리지도 시연회

군산시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화학물질 관리지도 시연회를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화학물질 관리지도 개발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앱 시연회를 통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앱을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장소 등 시민의 알 권리 총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신뢰성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화학물질 관리지도 지역 내 화학물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학물질의 특성인 폭발성 부식성 독성 등 전문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치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앱으로 화학사고가 발생되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대피장소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위치에서 화학사고 발생지점, 풍향을 고려하여 대피가 가능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시해주며 팝업창을 통한 화학사고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